



2026. 9. 30 (수)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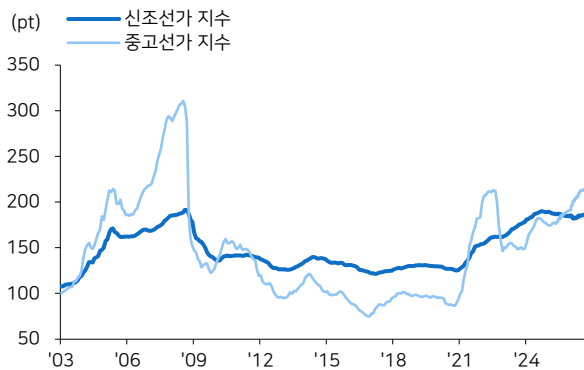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6.3p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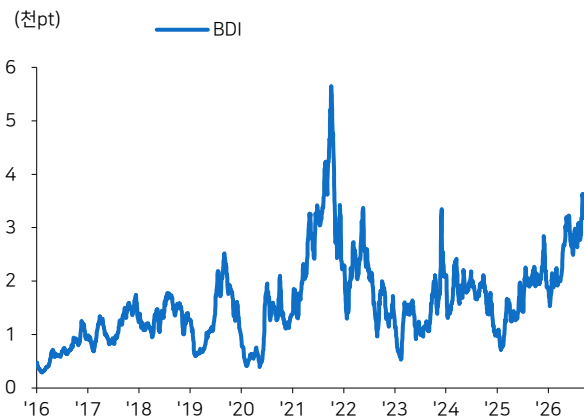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8.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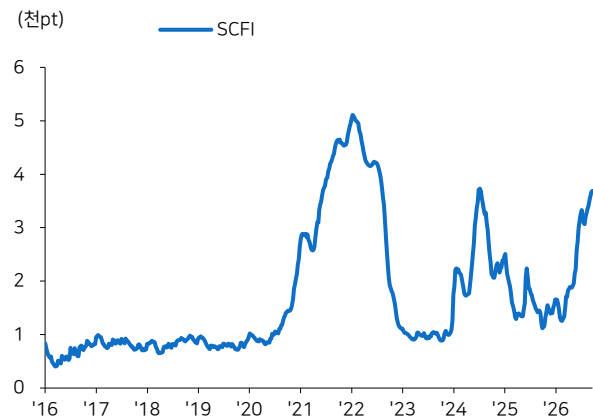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3,268.0p (-158.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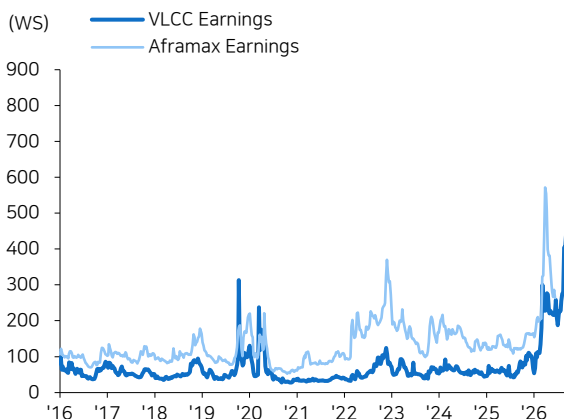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687.8 (+25.7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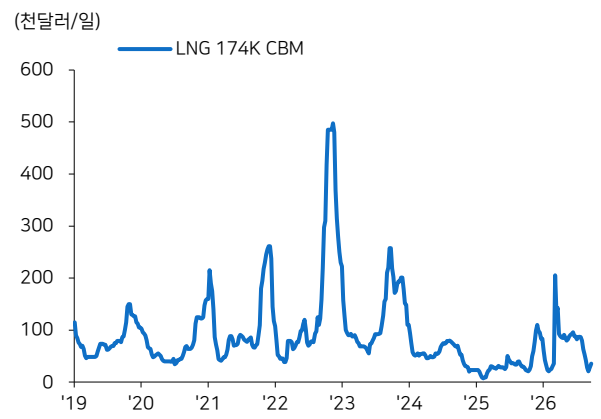
VLCC Spot Rate

825.0WS (+147.6 WoW)



LNG Spot 운임

35.8천달러 (+8.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hell approves second phase of giant LNG Canada project (Upstream)

<https://zrr.kr/yTiAob>

Shell이 LNG Canada 2단계 사업에 대한 최종투자결정(FID)을 확정하며 LNG 생산능력을 기존 1,400만tpa에서 2,800만tpa로 2배 확대한다고 보도됨. 2단계에는 LNG 트레인 2기가 추가되며 2030년대 초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캐나다 정부는 약 330억캐나다달러의 민간자본이 투입될 전망으로 예상된다고 알려짐. Shell은 이번 확장이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안보와 LNG 공급 다변화에 기여할 전망으로 평가했으며, Mitsubishi는 추가로 210만tpa의 LNG를 인수해 전체 인수 물량을 420만tpa로 확대할 계획으로 전해짐.

한화오션, 캐나다 호위함 정비한다..신조 수주 교두보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JjJQXR>

한화오션이 내달 부산에서 5,200t급 캐나다 호위함의 MRO 사업을 6억원 규모로 수행하며 캐나다 군함 신조 수주를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고 보도됨. MRO 실적이 향후 군함 건조 입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운데,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MASGA를 계기로 미국 군함 MRO 확대에도 대응하고 있다고 알려짐. 정부가 부산항에 1조5,000억원 규모 수리조선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으나, 선석 확보와 보안·출입통제 및 군 당국 협의 절차 개선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전해짐.

HD 현대중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기본급 12만원 인상 (연합뉴스)

<https://zrr.kr/e4ddYo>

HD현대중공업 노사가 기본급 12만원 인상과 일시금 1,100만원+200%, 성과급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보도됨. 출산 축하휴가 확대, 장기근속자 포상 강화, 생산기술직 신규 채용 등도 합의안에 포함됐으며, 회사는 조합원 1인당 평균 4,056만원의 보상 효과가 발생할 전망으로 추산된다고 알려짐. 노조는 오는 10월 2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7차례 부분파업과 37시간의 총파업 이후 조선업 호황기 생산 안정과 노사 관계 정상화를 위해 잠정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해짐.

한화오션 노사, 내일부터 매일 교섭...임단협 타결 속도 낸다 (뉴스 1)

<https://zrr.kr/i57Fla>

한화오션 노사가 임단협 타결을 위해 30일부터 실무교섭을 매일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도됨.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 기준 제도화, 정년 연장 등을 놓고 입장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조는 지난달 말부터 부분·전면파업과 골리앗크레인 가동 중단 등 쟁의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알려짐. 노조는 집중교섭과 별개로 부분파업을 병행할 방침이며, 교섭 횟수를 늘린 만큼 주요 쟁점에서 얼마나 점점을 좁히느냐가 임단협 타결의 관건이 될 전망으로 전해짐.

美 해군 "차기 소형 수상 전투함, HII·해외 설계안 모두 평가" (더구루)

<https://zrr.kr/fvd9lQ>

미 해군이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사업 취소 이후 차기 소형 수상전투함(FF(X)) 확보를 위해 HII의 자체 설계와 함께 한국 총남급, 일본 모가미급, 튀르키예 이스탄불급 등 동맹국 호위함 설계를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됨. 미 해군은 11월 12일까지 해외 호위함 설계 평가를 마무리해 백악관에 제출할 예정이며, 초도함은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한 뒤 후속함은 기술·공급망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핀란드식 조달 방식을 검토한다고 알려짐. 한국 총남급은 3,600t급 규모에 KVLV와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 등을 탑재하고 있어 후보로 평가되는 가운데, 해외 설계를 활용한 신속한 전력 보강과 미국 내 조선업 재건을 병행하는 방안이 한국 조선업계의 미국 군함 시장 진출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을 전망으로 전해짐.

삼성중공업 생산직 연 50명 채용...거제 인재 20명 배정 (서울경제)

<https://zrr.kr/DEuPal>

삼성중공업이 생산직 신규 채용을 내년부터 매년 5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 중 20명을 거제 지역 인재로 채용하기로 했다고 보도됨. 부산 R&D센터 설계인력은 거제 설계인력의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며, 현재 170여 명인 부산센터는 해양플랜트 설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짐.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은 지역 인재 채용 확대와 함께 심뇌혈관센터 운영, 협력사 복지기숙사 소유권 등 지역 상생 방안도 협의했다고 전해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